

2021년 동래구노인복지관 지역사회 욕구 조사보고서



신라대학교 운영

동래구노인복지관
Dongnae-gu Senior Welfare Center

목 차

I. 조사개요	p5
○ 조사의 목적	p5
○ 조사설계 및 실시	p5
II. 주요연구결과	p7
○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p7
○ 노인의 가구구성 현황	p8
○ 노인의 건강상태 및 행태	p13
○ 노인의 경제상황	p17
○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p19
○ 노인의 생활환경	p31
○ 노인의 노후생활	p35
○ 고객만족도 조사	p39
III. 결론 및 제언	p41



신라대학교 운영
동래구노인복지관
Dongnae-gu Senior Welfare Center

2021년 지역사회 욕구 조사보고서

I.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인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동래구 지역 노인의 생활 현황과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재 지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관 사업계획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설계 및 실시

□ 조사대상 :

○ 동래구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재가서비스를받고 있는 자 중 노인복지관 6대 기초 사업 별로 응답인원 할당 후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¹⁾

□ 조사항목 구성 :

○ 2021년 지역사회 욕구·만족도 조사 설계 기본 방향은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인 2020년 노인실태조사(3년주기 수행조사)’와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조사항목으로 구성하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로 구성함.

설문문항	구분	설문내용
	일반사항	거주지, 성별, 연령, 교육수준(학력), 경제적수준
A. 건강 및 기능상태	21년 노인실태조사 문항공통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개수, 만성질환종류, 음주경험, 과음주상태, 흡연유무, 금연생각, 치매검진유무, 평소운동량, 운동권장량 준수여부, 영양관리상태(10문항), 우울감
	추가개설항목	치매예방노력, 치매예방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 주관적 인지상태
B. 여가 및 사회활동	21년 노인실태조사 문항공통	TV시청·라디오 청취유무 및 1일 평균 이용시간, 여가·문화 활동유무, 주로참여하는 여가·문화 활동, 지난1년간 여가·문화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평생교육참여 유무 및 참여한 교육영역, 동호회 참여여부 및 참여빈도, 친목단체 참여여부 및 빈도,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우선순위조사, 자원봉사 활동 참여여부 및 주요영역, 향후 희망하는 자원봉사 영역, 전자기기(인터넷안되는 휴대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컴퓨터) 보유 여부·사용여부·사용시간, 전자기기를 활용한 활동(11문항) 조사, 정보화 기기 이용에 대한 불편함(5문항)
	추가개설항목	향후 평생교육참여 의향,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평생교육영역, 지난1년간 복지관 이용여부, 복지관 이용하지않는 이유 및 이용빈도, 복지관 주된 이용사유, 개별가정 인터넷 설치유무

1) 단순무작위 표본 추출 사전정의 : 조사대상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본크기대로 난수를 발생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설문문항	구분	설문내용
C. 가족 및 사회관계	21년 노인실태조사 문항공통	세대구성, 배우자와의 유무, 배우자와의 갈등경험, 배우자와의 갈등 중 가장 큰 원인, 배우자에게 도움을 준 경우(3문항),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3문항), 자녀유무, 자녀와 만남빈도, 자녀와 연락 빈도, 자녀와 갈등유무, 자녀와의 주요갈등 원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인척 유무 및 인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지인 유무 및 인원, 생활하면서 가정 힘든 점
D. 생활환경	21년 노인실태조사 문항공통	지역환경에 대한만족도(7문항), 주요 사용 교통수단,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현재 운전유무, 운전을 하는 자의 경우 어려움, 범죄 및 사고경험 유무(6문항), 노인학대 및 무시와 관련된 경험(6문항)
	추가개설항목	거주지 이전경험 유무, 거주지 이전사유, 거주지 이전 후 겪는 어려움
E. 경제활동 및 상태	21년 노인실태조사 문항공통	일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향후 참여하고 싶은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참여활동(2문항), 지출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추가개설항목	향후 경제활동 참여의사
F. 노후생활	21년 노인실태조사 문항공통	노인의 나이에 대한 생각, 삶에 대한 만족도(7문항), 본인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사회적 존중에 대한 주관적 생각, 노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했던 경험(7문항), 생애말기 죽음준비(8문항),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4문항), 자살시도 여부 및 주된사유
	추가개설항목	복지관에서 확대해야 될 사업에 대한 조사
G. 고객 만족도		복지관 쾌적성, 직원의 친절성, 직원의 전문성,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 서비스의 유용성,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의 변화성, 프로그램 추천여부, 향후 복지관 재이용의사, 전반적 만족도, 기타 건의사항 및 의견

□ 조사준비 :

○ 기관 종사자를 면접 조사원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고, 2021년 9월 6일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전교육 실시 함.

□ 조사진행 : 2021년 9월 13일 ~ 10월 27일 기간 중 일대일 직접 면접 조사 수행

□ 조사결과 :

○ 총 275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196명에 대해 조사 완료 함.

II 주요 연구 결과

1.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 거주지 분포 :

- 조사 응답한 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명륜동 21.4%, 수민동 16.8%이 특히 많았고 이외에도 온천1·2·3동 및 복산동에 거주하는 자가 많았음.
- 본 조사는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응답결과 복지관 위치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구분	응답	구분	응답
수민동	16.8% (33명)	사직2동	1.0% (2명)
복산동	9.7% (19명)	사직3동	4.1% (8명)
명륜동	21.4% (42명)	안락1동	4.6% (9명)
온천1동	11.7% (23명)	안락2동	1.0% (2명)
온천2동	8.2% (16명)	명장1동	4.1% (8명)
온천3동	6.6% (13명)	명장2동	4.1% (8명)
사직1동	3.1% (6명)	기타	3.6% (7명)
계		100% (196명)	

□ 성별 및 연령 현황 :

- 성별분포는 67.9% 여자, 32.1% 남자로 여성 이용자가 많았음.
-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70-79세가 5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함. 실제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0-79세가 55.1%로 높게 나타났고, 실제 복지관 이용 연령도 70-79세가 59.2%로 가장 많았음.

[표1-2] 성별		[표1-3] 연령구성	
성별	응답	연령	응답
남자	32.1% (63명)	60-69세	10.7% (21명)
여자	67.9% (133명)	70-79세	59.2% (116명)
		80-89세	29.6% (58명)
		90세 이상	0.5% (1명)
계	100% (196명)	계	100% (196명)

□ 교육수준 및 경제상태 :

-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비율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26.0%, 중학교 졸업 20.4%로 나타남.
-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일반이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 중에서도 기초연금²⁾을 수령하는 자가 53.1%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함.

2) 기초연금: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표1-4] 교육수준		[표1-5] 경제상태	
항목	응답	항목	응답
무학(글자모름)	3.1% (6명)	일반1(기초연금제외)	11.7% (23명)
무학(글자해독)	7.7% (15명)	일반2(기초연금수령)	53.1% (104명)
초등학교	32.7% (64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5.0% (49명)
중학교	20.4% (40명)	차상위	5.1% (10명)
고등학교	26.0% (51명)	기타	5.1% (10명)
대학교(4년미만)	5.1% (10명)		
대학교이상	5.1% (10명)		
계	100% (196명)	계	100% (196명)

2. 노인의 가구구성 현황

□ 노인의 세대 구성 :

○ 노인의 62.8%가 독거가구이며, 부부세대가 24.0%, 자녀동거가 11.7%, 기타가구 1.5%로 독거가구의 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표2-1] 세대구성					
구분	응답	구분	응답	구분	응답
독거	62.8% (123명)	부부세대	24.0% (47명)	기혼자녀	5.6% (11명)
미혼자녀동거	6.1% (12명)	기타	1.5% (3명)	계	100% (196명)

○ 남자노인의 경우 독거 및 부부세대가 각각 42.9%로 동일하였고, 여자노인의 경우 72.2%가 독거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함.

[표2-2] 성별에 따른 세대구성						
구분	독거	부부세대	기혼자녀	미혼자녀	기타	계
남자	42.9% (27명)	42.9% (27명)	6.3% (4명)	6.3% (4명)	1.6% (1명)	100% (63명)
여자	72.2% (96명)	15.0% (20명)	5.3% (7명)	6.0% (8명)	1.5% (2명)	100% (133명)

□ 배우자 유무 및 관계 :

○ 배우자 유무를 조사한 결과 67.3%가 배우자가 없었음.

○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32.7%를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갈등 유무를 조사한 결과 71.9%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표2-3] 배우자 유무, 지난 1년간 갈등 경험 유무			
구분	예	아니오	계
① 배우자 유무	32.7% (64명)	67.3% (132명)	100% (196명)
②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유무	71.9% (46명)	28.1% (18명)	100% (64명)

○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71.9%를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 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의 생활방식으로 인한 갈등’이 37.0%로 높게 파악되었음.

구분	응답
① 나(배우자)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 및 수발을 둘러싼 갈등	2.2% (1명)
② 나(배우자)의 부모 부양 관련 형제자매와의 갈등	4.3% (2명)
③ 배우자의 생활방식으로 인한 갈등	37.0% (17명)
④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 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	47.8% (22명)
⑤ 나 또는 배우자 수발 관련 갈등	4.3% (2명)
⑥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4.3% (2명)
⑦ 가사분담 방식으로 인한 갈등	-
계	100% (46명)

○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32.7%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도움을 준 정도’를 파악한 결과 도구적도움(청소·식사준비·세탁)이 8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신체적도움(간병·수발·병원동행도움)이 75.0%, 정서적도움(고민상담)이 67.2%로 파악 됨.

○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32.7%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은 정도’를 파악한 결과 도구적도움(청소·식사준비·세탁)이 7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신체적도움(간병·수발·병원동행도움)이 71.9%, 정서적도움(고민상담)이 67.2%로 파악 됨.

구분	[표2-5]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도움을 준 정도		[표2-6]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은 정도		계
① 고민상담 (정서적도움)	①매우그렇다	26.6% (17명)	①매우그렇다	32.8% (21명)	100% (64명)
	②그런편이다	40.6% (26명)	②그런편이다	34.4% (22명)	
	③그렇지않다	20.3% (13명)	③그렇지않다	25.0% (16명)	
	④전혀그렇지않다	12.5% (8명)	④전혀그렇지않다	7.8% (5명)	
② 청소·식사준비 세탁(도구적도움)	①매우그렇다	43.8% (28명)	①매우그렇다	29.7% (19명)	100% (64명)
	②그런편이다	43.8% (28명)	②그런편이다	46.9% (30명)	
	③그렇지않다	10.9% (7명)	③그렇지않다	14.1% (9명)	
	④전혀그렇지않다	1.6% (1명)	④전혀그렇지않다	9.4% (6명)	
③ 간병·수발·병원 동행도움 (신체적도움)	①매우그렇다	37.5% (24명)	①매우그렇다	26.6% (17명)	100% (64명)
	②그런편이다	37.5% (24명)	②그런편이다	45.3% (29명)	
	③그렇지않다	15.6% (10명)	③그렇지않다	14.1% (9명)	
	④전혀그렇지않다	9.4% (6명)	④전혀그렇지않다	14.1% (9명)	

○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도움을 준 정도와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은 정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구적 도움(청소·식사준비·세탁)을 가장 많이 주고 받았고, 정서적 도움은 적은 도움을 주고 받았음. 또한 유배우자 중 배우자와의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71.9%로 높게 나타나 배우자가 있어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유무 및 관계 :

○ 자녀 유무를 조사한 결과 90.3%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 함.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90.3%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자녀와의 갈등 유무’를 조사한 결과 57.1%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비율은 높았으나, 자녀와의 갈등 경험 비율은 적었음.

구분	예	아니오	계
① 자녀 유무	90.3% (177명)	9.7% (19명)	100% (196명)
② 지난 1년간 자녀와의 갈등 경험	42.9% (76명)	57.1% (101명)	100% (177명)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90.3%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만남 빈도를 파악 한 결과 ‘거의매일·일주일에 2-3회·일주일에 1회·한달에 1-2회·함께거주’ 5개 항목이 전체 54.7%를 차지함. 이를 통해 자녀가 있는 노인의 경우 최소 한달에 1-2회 이상 만남을 갖는 것으로 파악 됨.

구분	응답
① 거의매일(주4회이상)	10.7% (19명)
② 일주일에 2-3회	5.6% (10명)
③ 일주일에 1회	11.3% (20명)
④ 한달에 1-2회	24.3% (43명)
⑤ 3개월에 1-2회	12.4% (22명)
⑥ 1년에 1-2회	23.2% (41명)
⑦ 왕래안함	9.6% (17명)
⑧ 함께거주	2.8% (5명)
계	100% (177명)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90.3%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연락 빈도를 파악 한 결과 ‘거의매일·일주일에 2-3회·일주일에 1회·한달에 1-2회·함께거주’ 5개 항목이 전체 81.4%를 차지함. 이를 통해 자녀가 있는 노인의 경우 최소 한달에 1-2회 이상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파악 됨.

○ 자녀가 있는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갈등 경험이 적고 만남 및 연락 빈도가 높았음. 이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자녀가 있는 노인의 경우 자녀와 꾸준히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고 있었음.

구분	응답
① 거의매일(주4회이상)	23.2% (41명)
② 일주일에 2-3회	21.5% (38명)
③ 일주일에 1회	15.3% (27명)
④ 한달에 1-2회	18.6% (33명)
⑤ 3개월에 1-2회	5.6% (10명)
⑥ 1년에 1-2회	6.8% (12명)
⑦ 왕래안함	6.2% (11명)
⑧ 함께거주	2.8% (5명)
계	100% (177명)

○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42.9%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파악 함. 그 결과 자녀의 진로·이성교제·결혼문제가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구분	응답
①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7.9% (6명)
②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관련 갈등	17.1% (13명)
③ 자녀가 경제적 도움 요구	14.5% (11명)
④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 보조와 관련한 갈등	9.2% (7명)
⑤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
⑥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결혼문제	32.9% (25명)
⑦ 손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이견	15.8% (12명)
⑧ 나의 이성교제, 결혼문제	2.6% (2명)
계	100% (76명)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인척 존재 여부 및 인원

○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인척 존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54.6%가 있다고 응답함. 친인척 3-4명과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응답이 2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함.

구분	예	아니오	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인척 존재여부	54.6% (107명)	45.4% (89명)	100% (196명)

구분	응답
① 1-2명	67.3% (72명)
② 3-4명	22.4% (24명)
③ 5-6명	4.7% (5명)
④ 7명이상	5.6% (6명)
계	100% (107명)

□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지인 존재 여부 및 인원

○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지인 존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67.3%가 있다고 응답함. 주로 1-2명과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함.

[표2-13]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지인 존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지인 존재여부	67.3% (132명)	32.7% (64명)	100% (196명)

[표2-14]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지인 인원	
구분	응답
① 1-2명	67.4% (89명)
② 3-4명	23.5% (31명)
③ 5-6명	4.5% (6명)
④ 7명 이상	4.5% (6명)
계	100% (132명)

○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지인은 있으나 극히 소수들과 관계를 주고 받았음. 소수와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인간 관계 자체가 사라질 수 있었음.

□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음이 29.6%로 가장 높았고,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 없음이 24.5%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함.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고, 자녀와의 연락 및 만남 빈도가 높아도 자녀가 멀리 살거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아플 때 즉시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추측 되었음.

[표2-15]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구분	응답
① 없음	29.6% (58명)
②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 없음	24.5% (48명)
③ 가사 등 일상생활 문제	7.1% (14명)
④ 경제적 불안감	13.3% (26명)
⑤ 안전에 대한 불안감	5.1% (10명)
⑥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14.3% (28명)
⑦ 기타	6.1% (12명)
계	100% (196명)

3. 노인의 건강상태 및 행태

□ 주관적 건강상태

○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37.2%이고,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노인이 33.1%로 긍정적 평가 비율이 더 높음.

구분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이상	계
매우 건강하다	1.0% (2명)	3.6% (7명)	2.0% (4명)	-	6.6% (13명)
건강한 편이다	4.6% (9명)	18.9% (37명)	7.1% (14명)	-	30.6% (60명)
그저 그렇다	3.6% (7명)	17.3% (34명)	8.7% (17명)	-	29.6% (58명)
건강이 나쁜편이다	1.0% (2명)	17.9% (35명)	10.2% (20명)	-	29.1% (57명)
건강이 매우 나쁘다	0.5% (1명)	1.5% (3명)	1.5% (3명)	0.5% (1명)	4.0% (8명)
계	10.7% (21명)	59.2% (116명)	29.6% (58명)	0.5% (1명)	100% (196명)

○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60대의 경우 ‘건강한 편이다’에 대한 비율이 높고, 70대 ‘건강한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3개 항목이 비슷한 분포를 보임. 80대의 경우 건강이 나쁜 편이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경제적 상황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 한 결과 일반인 노인 중 64.8%가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 함.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음.

구분	일반 I	일반 II	수급권자	차상위	기타
매우 건강하다	0.5% (1명)	5.6% (11명)	0.5% (1명)	-	-
건강한 편이다	4.1% (8명)	20.4% (40명)	4.6% (9명)	1.0% (2명)	0.5% (1명)
그저 그렇다	5.1% (10명)	16.3% (32명)	5.6% (11명)	1.5% (3명)	1.0% (2명)
건강이 나쁜편이다	1.5% (3명)	9.2% (18명)	12.8% (25명)	2.0% (4명)	3.6% (7명)
건강이 매우 나쁘다	0.5% (1명)	1.5% (3명)	1.5% (3명)	0.5% (1명)	-
계	11.7% (23명)	53.1% (104명)	25% (49명)	5.1% (10명)	5.1% (10명)

※ 일반 I : 기초연금 제외자 ※ 일반 II : 기초연금 수급권자

□ 만성질환 개수 및 종류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노인의 86.7%임.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72.4%에 달함.

구분	응답	구분	응답	구분	응답
없음	13.3% (26명)	4개	14.3% (28명)	8개	4.1% (8명)
1개	14.3% (28명)	5개	8.7% (17명)	9개	1.0% (2명)
2개	17.9% (35명)	6개	6.6% (13명)	10개 이상	2.0% (4명)
3개	16.3% (32명)	7개	1.5% (3명)	계	100% (196명)

○ 만성질환의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당뇨병 25.2%, 고지혈증 15.6%, 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즘 관절염 16.3%, 우울증 9.8% 등의 순이었음.

□ 음주경험 및 과음주 상태

○ 지난 1년간 음주경험을 조사한 결과 ‘아니다’라고 응답한 자가 72.4%로 높게 나타남.
 -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7.6%를 대상으로 과음주 상태 조사한 결과 ‘아니다’라고 응답한 자가 72.2%로 높게 나타남.

[표3-3] 지난 1년간 음주경험, 과음주 상태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비고
① 지난 1년간 음주경험	27.6% (54명)	72.4% (142명)	100% (196명)	
② 1주에 8잔 이상 음주 유무	27.8% (15명)	72.2% (39명)	100% (196명)	과음주상태 조사

□ 흡연 및 금연생각

○ 현재 흡연 유무를 조사한 결과 ‘아니다’라고 응답한 자가 93.4%로 높게 나타남.
 - 흡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6.6%를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자가 53.8%로 금연에 대한 생각이 있었음.

[표3-4] 현재 흡연상태 및 금연생각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비고
① 현재 흡연 상태	6.6% (13명)	93.4% (183명)	100% (196명)	
② 금연에 대한 생각	53.8% (7명)	46.2% (6명)	100% (13명)	

□ 치매검진, 치매예방 노력 및 본인의 주관적 인지상태

○ 최근 2년간 치매검진 여부를 조사한 결과 63.8%의 노인이 그렇다고 응답 함.
 ○ 현재 치매예방 노력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8%가 그렇다고 응답 함.

[표3-5] 치매검진, 치매예방 노력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비고
① 최근 2년간 치매검진 여부	63.8% (125명)	36.2% (71명)	100% (196명)	
② 현재 치매예방 노력 여부	64.8% (127명)	35.2% (69명)	100% (196명)	

○ 치매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35.2%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 한 결과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가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음.

구분	응답
① 시간이 없어서	4.3% (3명)
②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5.8% (4명)
③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40.6% (28명)
④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20.3% (14명)
⑤ 기타	21.7% (15명)
⑥ 무응답	7.2% (5명)
계	100% (196명)

-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주관적 인지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상’이라고 응답한 자가 5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단순 건망증도 37.8%로 높게 나타남.
- 단순건망증이라 함은 ‘이전과 다르게 자주 깜빡거리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수준’을 의미함. 단순건망증에서 치매로 발전될 위험이 있어 개입이 필요함.

구분	응답
① 정상(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 없이 불편함 없음.)	57.1% (112명)
② 단순건망증(이전과 다르게 자주 깜빡거리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림.)	37.8% (74명)
③ 치매의심(내가 치매가 아닐까 의심이 듦.)	4.6% (9명)
④ 기타	0.5% (1명)
계	100% (196명)

평소운동실천 여부 및 운동권장 수준

- 평소 운동실천 노인은 76.5%이고, 운동권장 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는 84.0%임.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비고
① 평소 운동여부	76.5% (150명)	23.5% (46명)	100% (196명)	
②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 여부	84.0% (126명)	16.0% (24명)	100% (196명)	

노인의 영양관리 상태

- 최근 1개월간 노인의 영양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3-9]와 같음.
- 본 조사에 응답한 노인 중 독거세대가 많아 혼자 식사한다는 비율이 61.2%로 높게 나타남.
- 본 조사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응답자가 많아 하루 세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을 복용한다는 항목 역시 53.6%로 높게 나타남.
- 대체적으로 노인의 영양 관리 상태는 77.1%가 양호한 상태였음.

문항	응답		계
	그렇다	아니다	
① 질병(건강) 때문에 먹는 음식이나 종류를 바꾸고 있다.	19.4% (38명)	80.6% (158명)	100% (196명)
② 하루에 채 두끼를 못 먹는다.	11.2% (22명)	88.8% (174명)	100% (196명)
③ 과일, 채소 또는 유제품(우유 등)을 거의 먹지 않는다.	13.8% (27명)	86.2% (169명)	100% (196명)
④ 거의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	1.5% (3명)	98.5% (193명)	100% (196명)
⑤ 치아가 좋지 않거나 입안이 헐어서 음식 먹기가 힘들다.	32.7% (64명)	67.3% (132명)	100% (196명)
⑥ 돈이 부족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 못할 때도 있다.	33.7% (66명)	66.3% (130명)	100% (196명)
⑦ 거의 매번 혼자 식사한다.	61.2% (120명)	38.8% (76명)	100% (196명)
⑧ 하루에 세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을 복용한다.(처방 및 비처방 포함)	53.6% (105명)	46.4% (91명)	100% (196명)
⑨ 지난 6개월 사이 일부러 체중을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5kg이상 줄거나 늘었다.	35.2% (69명)	64.8% (127명)	100% (196명)
⑩ 장보고, 음식 만들고, 식사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다.	35.2% (69명)	64.8% (127명)	100% (196명)

□ 노인의 우울증상 조사

- 단축형 우울척도(SGDS)를 사용하여 8점 이상을 우울증상으로 정의함.
- 응답자의 25%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음. 성별 우울증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 노인의 우울증상이 14.3%, 여자노인의 우울증상이 30.1%로 여자 노인의 우울증상이 15.8% 높게 나타남.

척도점수	남자	여자	계
0점	30.2% (19명)	17.3% (23명)	21.4% (42명)
1점	15.9% (10명)	14.3% (19명)	14.8% (29명)
2점	7.9% (5명)	6.0% (8명)	6.6% (13명)
3점	3.2% (2명)	6.0% (8명)	5.1% (10명)
4점	7.9% (5명)	9.8% (13명)	9.2% (18명)
5점	7.9% (5명)	9.0% (12명)	8.7% (17명)
6점	7.9% (5명)	3.0% (4명)	4.6% (9명)
7점	4.8% (3명)	4.5% (6명)	4.6% (9명)
8점	7.9% (5명)	3.0% (4명)	4.6% (9명)
9점	1.6% (1명)	7.5% (10명)	5.6% (11명)
10점	-	5.3% (7명)	3.6% (7명)
11점	1.6% (1명)	6.0% (8명)	4.6% (9명)
12점	3.2% (2명)	1.5% (2명)	2.0% (4명)
13점	-	3.8% (5명)	2.6% (5명)
14점	-	2.3% (3명)	1.5% (3명)
15점	-	0.8% (1명)	0.5% (1명)
계	100% (63명)	100% (133명)	100% (196명)

4. 노인의 경제상황

□ 경제활동 희망 여부

○ 전체 노인 중 53.6%가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자도 46.4%로 비율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향후 경제활동 희망 여부	53.6% (105명)	46.4% (91명)	100% (196명)

□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

○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53.6%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조사 함. 그 결과 생계보다는 건강유지 및 사람과의 관계 등 사회적인 이유가 68.6%로 높게 나타남.

구분	응답
① 생계비 마련을 위해	31.4% (33명)
② 용돈이 필요해서	17.1% (18명)
③ 건강유지를 위해	21.9% (23명)
④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10.5% (11명)
⑤ 능력(경력)을 발휘하기 위해	4.8% (5명)
⑥ 시간을 보내기 위해	8.6% (9명)
⑦ 사회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5.7% (6명)
계	100% (105명)

□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53.6%를 대상으로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유형’에 1순위·2순위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 함.

- 1순위 : 공익활동 71.4%, 재능나눔활동 13.3%로 높게 나타남.
- 2순위 : 재능나눔활동 36.2%, 시장형사업단 21.0%로 높게 나타남.

구분	응답	
	1순위	2순위
① 공익활동(자기만족, 성취감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 일3시간 이내 참여)	71.4% (75명)	15.2% (16명)
② 시장형사업단(소규모 매장, 사업단 등을 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	8.6% (9명)	21.0% (22명)

③ 취·창업형 사업단(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1.9% (2명)	9.5% (10명)
④ 재능나눔활동(노인안전예방, 상담·안내, 교육·학습지도, 문화예술 등 봉사활동)	13.3% (14명)	36.2% (38명)
⑤ 사회서비스형 사업단(경력과 활동 역량을 이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일자리 15시간 이상 근로)	4.8% (5명)	18.1% (19명)
계	100% (105명)	100% (105명)

□ 지출하는 생활비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

- 식비(주식,부식비)가 29.6%, 보건의료비 18.4%, 주거관리비 10.2%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 46.4% 중 93.4%가 지출하는 생활비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해당 계층이 현재 노후준비가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추측되었음.

구분	응답
① 없음	26.0% (51명)
① 식비(주식,부식비)	29.6% (58명)
② 교육비	-
③ 월세	8.2% (16명)
④ 주거관리비(주택관리비, 냉난방비, 수도비 등)	10.2% (20명)
⑤ 보건의료비	18.4% (36명)
⑥ 간병수발비(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개인간병비, 용품 등)	0.5% (1명)
⑦ 가구·집기·가사용품	1.0% (2명)
⑧ 피복비(옷·신발 등 구입)	1.0% (2명)
⑨ 교양오락비	0.5% (1명)
⑩ 교통비	-
⑪ 통신비(인터넷, 휴대전화 사용료 등)	0.5% (1명)
⑫ 경조사비	1.5% (3명)
⑬ 부채상환	1.0% (2명)
⑭ 기타	1.5% (3명)
계	100% (196명)

5.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지난 1년간 TV시청, 라디오 청취 유무 및 1일 시청 시간

○ 노인 중 96.9%가 TV 또는 라디오를 시청한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시청시간은 3.9시간임.

[표5-1] 지난 1년간 TV 및 라디오 시청유무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비고
1년간 TV 및 라디오 시청 유무	96.9% (190명)	3.1% (6명)	100% (196명)	

○ TV 또는 라디오를 시청한다고 응답한 자 190명을 대상으로 1일 시청 시간 조사한 결과 일2시간이상-3시간 미만 31.6%, 일3시간이상-4시간미만 23.5%, 일6시간이상 18.4%로 높게 나타남.

[표5-2] 1일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시간	
구분	응답
① 일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1.6% (62명)
② 일3시간이상-4시간미만	23.5% (46명)
③ 일4시간이상-5시간미만	12.8% (25명)
④ 일5시간이상-6시간미만	8.7% (17명)
⑤ 일6시간이상	18.4% (36명)
⑥ 무응답	5.1% (10명)
계	100% (190명)

지난 1년간 여가·문화 활동 유무(TV시청, 라디오 청취 제외)

○ 노인의 62.2%는 TV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를 제외한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표5-3]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유무(TV시청, 라디오 청취 제외)				
구분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계
1년간 여가·문화활동 유무	62.2% (122명)	37.2% (37명)	0.5% (1명)	100% (196명)

주로하는 여가 및 문화활동 종류

○ 지난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62.2%를 대상으로 ‘주로 하는 여가 및 문화 활동 종류’를 1,2순위로 나누어 조사함.

- 1순위로는 휴식활동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취미·오락활동이 33.6%로 높게 나타남.

: 휴식활동 중에는 산책이 24.6%로 가장 높았고, 취미·오락활동 중에는 교양강좌·노인교실·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수강이 16.4%로 가장 높았음.

- 2순위로는 취미·오락활동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휴식활동이 32.0%로 높게 나타남.

: 1순위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미·오락활동 중에는 교양강좌·노인교실·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수강이 9.8%로 가장 높았고, 휴식활동 역시 산책이 21.3%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함.

○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들은 휴식 및 취미·오락활동을 통해 여가 및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산책이나 교양강좌·노인교실·복지관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으로 파악 됨.

[표5-4] 주로하는 여가·문화활동					
구분				응답(1순위)	응답(2순위)
세부항목	분류표	세부응답			
		1순위	2순위		
① 문화예술관람활동	101	1.6% (2명)	3.3% (4명)	2.5% (3명)	4.9% (6명)
	102	0.8% (1명)	1.6% (2명)		
② 문화예술참여활동	201	5.7% (7명)	1.6% (2명)	8.2% (10명)	4.1% (5명)
	202	1.6% (2명)	1.6% (2명)		
	203	0.8% (1명)	0.8% (1명)		
	204	-	-		
③ 스포츠관람활동	300	1.6% (2명)	-	1.6% (2명)	-
④ 스포츠참여활동	400	9.0% (11명)	8.2% (10명)	9.0% (11명)	8.2% (10명)
⑤ 관광활동	501	-	0.8% (1명)	0.8% (1명)	0.8% (1명)
	502	0.8% (1명)	-		
⑥ 취미·오락활동	601	4.9% (6명)	1.6% (2명)	33.6% (41명)	34.4% (42명)
	602	8.2% (10명)	9.0% (11명)		
	603	2.5% (3명)	4.9% (6명)		
	604	0.8% (1명)	4.1% (5명)		
	605	-	-		
	606	-	2.5% (3명)		
	607	16.4% (20명)	9.8% (12명)		
	608	0.8% (1명)	2.5% (3명)		
⑦ 휴식활동	701	12.3% (15명)	4.1% (5명)	38.5% (47명)	32.0% (39명)
	702	24.6% (30명)	21.3% (26명)		
	703	0.8% (1명)	5.7% (7명)		
	704	0.8% (1명)	0.8% (1명)		
⑧ 사회 및 기타활동	801	2.5% (3명)	4.1% (5명)	5.7% (7명)	13.1% (16명)
	802	3.3% (4명)	8.2% (10명)		
	803	-	0.8% (1명)		
⑨ 무응답	-	-	2.5% (3명)	-	2.5% (3명)
계				100% (122명)	100% (122명)

여가·문화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지난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37.2%를 대상으로 그 사유에 대해 조사함.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가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외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27.0%,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13.5%로 높게 나타남.

[표5-5] 여가·문화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구분	응답
① 시간이 없어서	5.4% (2명)
②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8.1% (3명)
③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13.5% (5명)
④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29.7% (11명)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27.0% (10명)
⑥ 여가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떨어져서	2.7% (1명)
⑦ 함께할 친구, 사람이 없어서	8.1% (3명)
⑧ 기타	5.4% (2명)
계	100% (37명)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을 1,2순위로 나누어 조사함.

- 1순위로는 취미·오락활동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휴식활동이 19.4%, 관광활동이 12.8%로 높게 나타남.

: 세부응답을 살펴보면 취미·오락활동 중에는 교양강좌·노인교실·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수강이 11.7%, 휴식활동에는 산책이 11.2%, 관광활동에는 기타(문화유적, 나들이, 지역축제 등)가 11.2%로 높게 나타남.

- 2순위로는 취미·오락활동이 24%로 가장 많았으며, 휴식활동이 21.4%, 사회 및 기타활동이 13.3%로 높게 나타남.

: 세부응답을 살펴보면 취미·오락활동 중에는 교양강좌·노인교실·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수강이 7.1%, 휴식활동에는 산책이 10.2%, 사회 및 기타활동에는 사회활동(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 등)이 8.2%로 높게 나타남.

[표5-6]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구분						응답(1순위)	응답(2순위)
세부항목	분류표	세부응답					
		1순위	2순위				
① 문화예술관람활동	101	4.6% (9명)	3.1% (6명)	7.1% (14명)	7.1% (14명)		
	102	2.6% (5명)	4.1% (8명)				
② 문화예술참여활동	201	8.7% (17명)	6.6% (13명)	16.3% (명)	11.2% (22명)		
	202	4.1% (8명)	1.5% (3명)				
	203	1.5% (3명)	3.1% (6명)				
	204	2.0% (4명)	-				
③ 스포츠관람활동	300	2.0% (4명)	3.1% (6명)	2.0% (4명)	3.1% (6명)		
④ 스포츠참여활동	400	7.7% (15명)	7.7% (15명)	7.7% (18명)	7.7% (15명)		
⑤ 관광활동	501	1.5% (3명)	1.0% (2명)	12.8% (25명)	8.7% (17명)		
	502	11.2% (22명)	7.7% (15명)				
⑥ 취미·오락활동	601	2.0% (4명)	1.0% (2명)	25% (49명)	24% (47명)		
	602	5.1% (10명)	4.6% (9명)				
	603	0.5% (1명)	2.0% (4명)				
	604	1.5% (3명)	2.0% (4명)				
	605	1.0% (2명)	1.0% (2명)				
	606	0.5% (1명)	1.0% (2명)				
	607	11.7% (23명)	7.1% (14명)				
	608	2.6% (5명)	5.1% (10명)				
⑦ 휴식활동	701	3.6% (7명)	3.6% (7명)	19.4% (38명)	21.4% (42명)		
	702	11.2% (22명)	10.2% (20명)				
	703	3.1% (5명)	2.6% (5명)				
	704	1.5% (3명)	5.1% (10명)				
⑧ 사회 및 기타활동	801	2.0% (4명)	2.6% (5명)	8.2% (16명)	13.3% (26명)		
	802	5.1% (10명)	8.2% (16명)				
	803	1.0% (2명)	2.6% (5명)				
⑨ 무응답	-	1.5% (3명)	3.6% (7명)	1.5% (3명)	3.6% (7명)		
계				100% (196명)	100% (196명)		

※ 붙임 [표5-4], [표5-6]관련 _ [여가·문화활동 분류표]

구분	세부활동(코드)	구분	세부활동(코드)	구분	세부활동(코드)
1. 문화예술 관람 활동	101.영화보기	2. 문화예술 참여 활동	201.악기연주/노래교실(노래부르기)	3. 스포츠 관람 활동	300. ·스포츠, 경기, 직접관람-경기장방문관람(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TV, DMB를 통한 관람(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격투기 경기관람, 온라인게임 경기 현장관람(e-스포츠 경기 포함)
	102.기타 ·전시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클래식, 오페라), 전통예술공연 관람(국악, 민속놀이), 연극공연 관람(뮤지컬 포함), 무용공연 관람, 연예공연 관람(쇼, 콘서트, 마술쇼)		202.미술활동(그림, 서예, 조각, 디자인, 도예, 만화)		
			203. 춤/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204.기타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사물놀이, 줄타기 등), 사진촬영(디지털카메라포함)		
4. 스포츠 참여 활동	400.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족구, 테니스, 스쿼시, 당구, 포켓볼, 볼링, 탁구, 골프, 수영, 윈드서핑, 수상스키, 스킨스쿠버다이빙, 래프팅, 요트, 스노보드, 스키, 아이스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헬스(보디빌딩),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태보, 배드민턴, 줄넘기, 맨손 스트레칭체조, 훌라후프, 육상, 조깅, 속보, 격투기 운동(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권투), 댄스스포츠(탱고, 왈츠, 자이브, 맘보, 폴카, 차차차), 자전거타기, 사이클링, 산악자전거, 인라인스케이팅, 승마, 암벽등반, 철인삼종경기, 서바이벌	5. 관광 활동 (※ E4. 회당 여가문화활동에 해당)	502.기타 ·문화유적방문(고궁, 절, 유적지),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삼림욕, 국내캠핑, 해외여행, 소풍·야유회·놀이, 온천·해수욕, 유람선 타기, 테마파크 가기, 놀이공원·동물원·식물원 가기, 지역축제 참가	6. 취미 오락 활동	601.화투·고스톱(경마(륜), 카지노, 카드놀이, 마작, 복권구입)
		602.등산			
		603.화초가꾸기			
		64.독서, 만화책/성경/불경 보기			
		605.낚시			
		606.바둑(인터넷 바둑 포함), 장기, 체스, 윗놀이			
		607.교양강좌, 노인교실, 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수강,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공부·학원 등 이용			
7. 휴식 활동	701. TV시청(DMB/IPTV포함) (※ E4.회당 여가문화활동에만 해당)	8. 사회 및 기타 활동	801.종교활동		608.기타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십자수, 비즈공예, D.I.Y. 꽃꽂이), 요리하기, 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노래방 가기, 인테리어(집, 자동차), 미니홈피/블로그 관리, 인터넷 검색/채팅/UCC 제작/ SNS, 게임(인터넷, 닌텐도), 보드게임/퍼즐/큐브 맞추기, 쇼핑/외식, 음주, 미용(피부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경이나 불경 필사
	702.산책(걷기)		802.그 외 사회활동 ·사회봉사활동, 클럽/나이트/디스코/키바레 가기,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계모임/동창회/사교(파티)모임, 이성교제(데이트)/미팅/소개팅,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703.음악감상/찬송가·찬불가 듣기		803.기타활동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예: 텃밭 가꾸기 등)		
	704.기타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비디오(DVD)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 보기				

□ 지난 1년간 학습활동 참여여부 및 향후참여 의사

○ 노인의 41.8%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98%가 향후 학습활동에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함.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비고
① 1년간 교육활동 참여여부	41.8% (82명)	58.2% (114명)	100% (196명)	
② 향후 참여의사	98.0% (194명)	2.0% (2명)	100% (196명)	

○ 학습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41.8%를 대상으로 주로 학습한 유형에 대해 조사함. 건강관리·운동교육이 36.1%, 기타(특화서비스, 재능나눔)가 19.3%, 문화·예술교육 및 외국어가 각각 12%로 높게 나타남.

구분	응답
① 건강관리(증진)·운동교육	36.1% (30명)
② 문화·예술(춤,요가,음악)교육	12.0% (10명)
③ 외국어	12.0% (10명)
④ 인문학	4.8% (4명)
⑤ 컴퓨터 등 정보화교육	13.3% (11명)
⑥ 취업 또는 직업교육	1.2% (1명)
⑦ 기타	19.3% (16명)
계	100% (82명)

○ 향후 학습활동에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98%를 대상으로 향후 희망하는 학습유형에 대해 조사함. 건강관리·운동교육이 39.2%, 문화·예술교육이 30.9%로 앞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함.

구분	응답
① 건강관리(증진)·운동교육	39.2% (76명)
② 문화·예술(춤,요가,음악)교육	30.9% (60명)
③ 외국어	7.2% (14명)
④ 인문학	2.6% (5명)
⑤ 컴퓨터 등 정보화교육	9.3% (18명)
⑥ 취업 또는 직업교육	1.5% (3명)
⑦ 기타	9.3% (18명)
계	100% (194명)

□ **지난 1년간 동호회, 친목단체 활동 여부 및 빈도**

- 81.6%가 지난 1년간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 함.
- 67.3%가 지난 1년간 친목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 함.

구분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계
① 동호회 활동여부	17.3% (34명)	81.6% (160명)	1.0% (2명)	100% (196명)
② 친목단체 활동여부	31.6% (62명)	67.3% (132명)	1.0% (2명)	100% (196명)

- 동호회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17.3%를 대상으로 참여빈도 조사한 결과 주2-3회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친목단체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31.6%를 대상으로 참여빈도 조사한 결과 월1회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구분	응답(동호회)	응답(친목단체)
① 주 4회이상	-	3.2% (2명)
② 주2-3회	35.5% (12명)	14.5% (9명)
③ 주1회	20.6% (7명)	16.1% (10명)
④ 2주 1회	8.8% (3명)	4.8% (3명)
⑤ 월 1회	20.6% (7명)	45.2% (28명)
⑥ 월 1회 미만	14.7% (5명)	16.1% (10명)
계	100% (34명)	100% (62명)

□ **향후 희망하는 활동에 대한 조사**

- 항목별로 희망정도(반드시참여~기회가된다면참여)를 살펴보면 취미·여가활동 76.5%, 친목활동 60.7%, 학습활동 54.1%, 자원봉사활동 48.5%, 경제활동 44.9%, 종교활동 40.3%, 정치사회활동 11.7% 순으로 나타남.

구분	반드시 참여	될수있다면 참여	기회가 된다면 참여	별로 생각없음	전혀 생각없음	계
① 자원봉사활동	14.3% (28명)	15.8% (31명)	18.4% (36명)	24.5% (48명)	27.0% (53명)	100% (196명)
② 학습활동	24.5% (48명)	16.3% (32명)	13.3% (26명)	21.4% (42명)	24.5% (48명)	100% (196명)
③ 취미·여가활동	27.0% (53명)	26.0% (51명)	23.5% (46명)	12.2% (24명)	11.2% (22명)	100% (196명)
④ 종교활동	14.8% (29명)	14.3% (28명)	11.2% (22명)	25.0% (49명)	34.7% (68명)	100% (196명)
⑤ 정치사회활동	0.5% (1명)	2.6% (5명)	8.7% (17명)	24.0% (47명)	64.3% (126명)	100% (196명)
⑥ 친목활동	17.3% (34명)	24.0% (47명)	19.4% (38명)	17.3% (34명)	21.9% (43명)	100% (196명)
⑦ 경제활동	14.8% (29명)	16.8% (33명)	13.3% (26명)	23.0% (45명)	32.1% (63명)	100% (196명)

자원봉사활동 경험, 참여한 자원봉사 활동 유형, 향후 희망하는 자원봉사 활동 유형

○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81.1%가 참여한 경험이 없었음.

[표5-13]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18.9% (37명)	81.1% (159명)	100% (196명)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8.9%를 대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 유형에 대해 조사 함. 오랜취미활동이나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을 활용한 활동이 29.7%, 직업 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가 21.6%로 전문봉사참여가 51.3%로 나타남.

[표5-14] 참여했다고 응답한 자 중 참여한 자원봉사 유형	
구분	응답
B7-1) 참여한 자원봉사 유형 (B7에 그렇다 응답한 자 37명만 응답)	
① 단순한 노력봉사	48.6% (18명)
② 오랜취미활동이나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을 활용한 활동	29.7% (11명)
③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	21.6% (8명)
계	100% (37명)

○ 향후 희망하는 자원봉사 활동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단순한 노력봉사가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15] 향후 희망하는 자원봉사 활동 유형	
구분	응답
B7-2) 향후 희망하는 봉사 유형	
① 단순한 노력봉사	65.8% (129명)
② 오랜취미활동이나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을 활용한 활동	18.9% (37명)
③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	5.1% (10명)
④ 향후 참여의사 없음	10.2% (20명)
계	100% (196명)

지난 1년간 본기관 이용여부·이용빈도·주된이용 이유

○ 76.5%가 지난 1년간 동래구노인복지관을 이용했다고 응답 함.

[표5-16] 지난 1년간 동래구노인복지관 이용여부			
구분	있다	없다	계
지난 1년간 본기관 이용여부	76.5% (150명)	23.5% (46명)	100% (196명)

○ 동래구노인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6.5%를 대상으로 이용빈도 조사한 결과 주2-3회 31.1%, 주1회 27.6%로 나타남.

[표5-17] 이용할 경우, 이용 빈도	
구분	응답
① 주2-3회	31.1% (61명)
② 주1회	27.6% (54명)
③ 2주1회	3.6% (7명)
④ 월1회	9.7% (19명)
⑤ 월1회미만	4.6% (9명)
계	100% (150명)

○ 동래구노인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6.5%를 대상으로 주된 이용이유를 조사한 결과 고용 및 소득창출 19.4%, 건강생활지원 16.8%,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15.8%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5-18] 이용할 경우, 주된 이용이유	
구분	응답
① 상담서비스(일반상담, 전문상담 프로그램 등)	3.1% (6명)
②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노인맞춤돌봄, 응급서비스, 결연 등)	15.8% (31명)
③ 건강생활지원(건강증진프로그램, 기능회복, 급식, 밀반찬 등)	16.8% (33명)
④ 노년사회화교육(평생교육, 여가취미 등)	8.7% (17명)
⑤ 사회참여지원(노인자원봉사, 선배시민, 재능나눔 등)	5.6% (11명)
⑥ 고용 및 소득창출(일자리)	19.4% (38명)
⑦ 지역자원연계(지역노인행사, 주거지원 등)	3.6% (7명)
⑧ 기타	3.6% (7명)
계	100% (150명)

○ 동래구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3.5%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프로그램 축소운영이 62.2%로 높게 나타남.

[표5-19]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구분	응답
B8-1) 이용하지 않는 이유 (B8에 없음 응답한 자 46명만 응답)	
①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
② 교통상의 불편함	17.8% (8명)
③ 코로나 19로 인한 복지관 프로그램 축소운영	62.2% (28명)
④ 직원 및 종사자, 운영기관에 대한 불만족	-
⑤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11.1% (5명)
⑥ 기타	11.1% (5명)
계	100% (46명)

□ 전자기기 보유·사용여부

○ 노인의 정보화 기기 보유 및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보유71.4%, 사용 68.4%)을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보유27.6%, 사용 26.5%), 컴퓨터(보유26.0%, 사용 16.3%)임.

구분	보유여부			사용여부		
	보유	미보유	계	사용	미사용	계
① 인터넷안되는 휴대폰	27.6% (54명)	72.4% (142명)	100% (196명)	26.5% (52명)	73.5% (144명)	100% (196명)
②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71.4% (140명)	28.6% (56명)	100% (196명)	68.4% (134명)	31.6% (62명)	100% (196명)
③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26.0% (51명)	74.0% (145명)	100% (196명)	16.3% (32명)	83.7% (164명)	100% (196명)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일 하루 1시간씩 사용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함.

○ 컴퓨터를 사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1회 하루 1시간씩 사용한다는 노인이 많았음.

구분	사용시간(주단위)		사용시간(일단위)		계
	문항	응답	문항	응답	
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①일주일에 1번	12.7% (17명)	①하루 1시간	29.1% (39명)	100% (134명)
	②일주일에 2번	0.7% (1명)	②하루 2시간	16.4% (22명)	
	③일주일에 3번	6.0% (8명)	③하루 3시간	15.7% (21명)	
	④일주일에 4번	2.2% (3명)	④하루 4시간	8.2% (11명)	
	⑤일주일에 5번	4.5% (6명)	⑤하루 5시간	8.2% (11명)	
	⑥일주일에 6번	3.7% (5명)	⑥하루 6시간	3.0% (4명)	
	⑦일주일에 7번	59.0% (79명)	⑦하루 7시간 이상	6.0% (8명)	
	⑧무응답	11.2% (15명)	⑧무응답	13.4% (18명)	
② 컴퓨터 (데스크톱, 노트북)	①일주일에 1번	37.5% (12명)	①하루 1시간	56.3% (18명)	100% (32명)
	②일주일에 2번	21.9% (7명)	②하루 2시간	31.3% (10명)	
	③일주일에 3번	6.3% (2명)	③하루 3시간	3.1% (1명)	
	④일주일에 4번	6.3% (2명)	④하루 4시간	-	
	⑤일주일에 5번	6.3% (2명)	⑤하루 5시간	-	
	⑥일주일에 6번	-	⑥하루 6시간	6.3% (2명)	
	⑦일주일에 7번	21.9% (7명)	⑦하루 7시간 이상	3.1% (1명)	
	⑧무응답	-	⑧무응답	-	

□ 전자기기(PC, 휴대폰, 태블릿PC) 활용도

○ 메시지받기 사용 비율이 78.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메시지 보내기 60.7%,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으로 나타나 정보화 기기 사용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표5-22] 전자기기 보유여부, 사용여부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① 메시지받기 :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78.6% (154명)	21.4% (42명)	100% (196명)
② 메시지보내기 :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60.7% (119명)	39.3% (77명)	100% (196명)
③ 정보검색 및 조회 : 날씨, 뉴스 등	50% (98명)	50% (98명)	100% (196명)
④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57.7% (113명)	42.3% (83명)	100% (196명)
⑤ 음악듣기 : MP3, 라디오 등	36.2% (71명)	63.8% (125명)	100% (196명)
⑥ 게임	10.2% (20명)	89.8% (176명)	100% (196명)
⑦ 동영상보기 : 영화, TV, 유튜브 등	41.3% (81명)	58.7% (115명)	100% (196명)
⑧ 소셜네트워크 : 블로그, 밴드, 인스타 등	10.7% (21명)	89.3% (175명)	100% (196명)
⑨ 전자상거래 : 온라인쇼핑, 예매, 예약 등	14.8% (29명)	85.2% (167명)	100% (196명)
⑩ 금융거래 : 인터넷뱅킹, 증권 등	9.2% (18명)	90.8% (178명)	100% (196명)
⑪ 어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12.2% (24명)	87.8% (172명)	100% (196명)

□ 가정 내 인터넷 설치 여부

○ 노인의 65.3%가 가정내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표5-23] 가정내 인터넷 설치여부			
구분	예	아니오	계
가정내 인터넷 설치 여부	34.7% (68명)	65.3% (128명)	100%(196명)

□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화 기기 이용 여부 및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

○ 다양한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음.

- 노인 중 52.6%가 정보화 기기를 통해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불편하다+매우불편하다)을 경험함.
- 노인 중 57.1%가 식당 등에서의 키오스크 주문에 대한 불편함(불편하다+매우불편하다)을 경험함.
- 노인 중 48.5%가 은행에서의 ATM 사용 또는 은행점포 감소로 불편함(불편하다+매우불편하다)을 경험함.

다)을 경험함.

- 노인 중 43.4%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만 이용 가능한 점포 증가로 불편함(불편하다+매우불편하다)을 경험함.

- 노인 중 51%가 온라인 위주의 정보공개로 불편함(불편하다+매우불편하다)을 경험함.

[표5-24]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화 기기 이용 여부 및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			
문항		응답	계
B12-1) 기차/고속버스/시외버스예매(온라인 예매 중심으로 자리가 없어서)	①전혀 불편하지 않다	16.8% (33명)	100% (196명)
	②불편하지 않다	14.8% (29명)	
	③보통이다	15.8% (31명)	
	④불편하다	23.0% (45명)	
	⑤매우불편하다	29.6% (58명)	
B12-2) 식당등에서의 키오스크 주문	①전혀 불편하지 않다	13.3% (26명)	100% (196명)
	②불편하지 않다	14.3% (28명)	
	③보통이다	15.3% (30명)	
	④불편하다	23.5% (46명)	
	⑤매우불편하다	33.7% (66명)	
B12-3) 은행에서의 ATM 사용 또는 은행점포 감소	①전혀 불편하지 않다	14.8% (29명)	100% (196명)
	②불편하지 않다	18.9% (37명)	
	③보통이다	17.9% (35명)	
	④불편하다	21.9% (43명)	
	⑤매우불편하다	26.5% (52명)	
B12-4)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만 이용 가능한 점포 증가	①전혀 불편하지 않다	18.9% (37명)	100% (196명)
	②불편하지 않다	18.4% (36명)	
	③보통이다	19.4% (38명)	
	④불편하다	18.4% (36명)	
	⑤매우불편하다	25.0% (49명)	
B12-5) 온라인 위주의 정보공개	①전혀 불편하지 않다	13.8% (27명)	100% (196명)
	②불편하지 않다	14.8% (29명)	
	③보통이다	20.4% (40명)	
	④불편하다	20.9% (41명)	
	⑤매우불편하다	30.1% (59명)	

6. 노인의 생활환경

현재 살고 있는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살고 있는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항목에 있어 62.9%의 노인이 만족(매우만족+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음.

- 대중교통 빈도 및 노선 78.1% 만족(매우만족+만족)
- 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등의 거리 76.5% 만족(매우만족+만족)
- 치안 및 교통 66.8% 만족(매우만족+만족)
- 지역사회 환경전반 61.7% 만족(매우만족+만족)
- 녹지공간, 공간충분성 또는 거리 59.7% 만족(매우만족+만족)
- 이웃과의 교류기회 52.6% 만족(매우만족+만족)
- 자녀 또는 친지와 거주지 거리 45.4% 만족(매우만족+만족)

구분	응답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거리	29.6% (58명)	46.9% (92명)	19.4% (38명)	4.1% (8명)	-
② 대중교통 빈도/노선	26.5% (52명)	51.5% (101명)	16.8% (33명)	4.6% (9명)	0.5% (1명)
③ 녹지공간, 공간 충분성 또는 거리	20.9% (41명)	38.8% (76명)	29.6% (58명)	9.7% (19명)	1.0% (2명)
④ 치안, 교통안전	24.5% (48명)	42.3% (83명)	28.1% (55명)	4.6% (9명)	0.5% (1명)
⑤ 자녀 또는 친지와 거주지 거리	17.3% (34명)	28.1% (55명)	34.2% (67명)	13.3% (26명)	7.1% (14명)
⑥ 이웃과의 교류 기회	14.3% (28명)	38.3% (75명)	29.6% (58명)	11.7% (23명)	6.1% (12명)
⑦ 지역사회 환경 전반	12.2% (24명)	49.5% (97명)	32.1% (63명)	3.6% (7명)	2.6% (5명)
계	100% (196명)	100% (196명)	100% (196명)	100% (196명)	100% (196명)

이동시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

○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함.

구분	응답	구분	응답
① 도보	8.2% (16명)	⑤ 자가용	3.6% (7명)
② 버스	12.8% (25명)	⑥ 자전거	2.0% (4명)
③ 지하철	66.3% (130명)	⑦ 오토바이	0.5% (1명)
④ 택시	6.6% (13명)		
계			100% (196명)

□ 평소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가 41.3%로 평소 외출 시 가장 불편한점이라고 응답 함.
- 평소 외출 시 불편한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0.8%로 높게 나타 남.

[표6-3] 평소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구분	응답
① 없음	40.8% (80명)
② 버스(전철)타고 내리기	4.1% (8명)
③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41.3% (81명)
④ 교통수단 부족	4.1% (8명)
⑤ 이동하기에 불편한 도로상태	0.5% (1명)
⑥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편의 시설(짧은 신호시간 등)	2.6% (5명)
⑦ 인도가 없어 보행시 위험	1.5% (3명)
⑧ 차량이 많아 다니기에 위험함	5.1% (10명)
계	100% (196명)

□ 현재 차량운행 여부(운전), 운전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

- 노인의 85.2%가 현재 차량 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6-4] 현재 차량운전 여부			
구분	예	아니오	계
현재 차량 운전 여부	14.8% (29명)	85.2% (167명)	100% (196명)

- 운전을 한다고 응답한 14.8% 중 89.7%가 운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응답 함.

[표6-5] 운전을 한다고 응답한 자 중, 운전을 하는데 어려움 존재 여부 조사	
구분	응답
① 매우그렇다	-
② 그렇다	3.4% (1명)
③ 그저그렇다	6.9% (2명)
④ 그렇지않다	55.2% (16명)
⑤ 전혀그렇지않다	34.5% (10명)
계	100% (29명)

□ 지난 1년간 범죄 또는 사고 경험 여부

- 지난 1년간 ‘재산범죄, 폭력·강력범죄, 노인대상 사기성 물건 구매 경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 경험,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 안전사고(화재·가스누출·누수등)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

과 평균 99.2%가 관련 범죄 또는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 함.

[표6-6]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범죄 또는 사고 경험 여부			
구분	응답		계
	있다	없다	
① 재산범죄(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0.5% (1명)	99.5% (195명)	100% (196명)
② 폭력·강력범죄(폭행, 상해, 협박, 유인, 감금, 강간 등)	-	100% (196명)	100% (196명)
③ 노인대상 사기성 물건 구매 경험	0.5% (1명)	99.5% (195명)	100% (196명)
④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 경험	2.6% (5명)	97.4% (191명)	100% (196명)
⑤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	-	100% (196명)	100% (196명)
⑥ 안전사고(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	1.0% (2명)	99.0% (194명)	100% (196명)

□ 지난 1년간 노인학대 경험 여부

○ 지난 1년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에 대한 노인 학대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96.6%가 관련 경험이 없다고 응답 함.

[표6-7] 지난 1년간 노인학대 경험 여부			
구분	응답		계
	있다	없다	
① 타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당하였다(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0.5% (1명)	99.5% (195명)	-
② 타인에게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경험하였다	1.0% (2명)	99.0% (194명)	100% (196명)
③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대화기피, 무시, 못들은척, 짜증, 불평등)	8.2% (16명)	91.8% (180명)	100% (196명)
④ 타인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내 동의 없이 돈을 쓰거나 강제로 명의변경 등)	1.0% (2명)	99.0% (194명)	100% (196명)
⑤ 가족이나 보호자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간병, 청결유지 등)	4.6% (9명)	95.4% (187명)	100% (196명)
⑥ 가족이나 보호자가 거의 찾아오지 않거나 연락하지 않고 생활비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	4.6% (9명)	95.4% (187명)	100% (196명)

□ 최근 2년 이내 거주지 이전 여부

○ 최근 2년 이내 거주지 이전 여부를 조사한 결과 85.7%가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었고 14.3%가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응답 함.

[표6-8] 최근 2년 이내 거주지 이전 여부			
구분	예	아니오	계
최근 2년 이내 거주지 이전 여부	14.3% (28명)	85.7% (168명)	100% (196명)

○ 최근 2년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응답한 14.3%를 대상으로 거주지 이전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재개발·재건축이 46.4%, 집값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이 14.3%로 높게 나타남.

[표6-9] 거주지 이전 사유	
구분	응답
① 재개발·재건축	46.4% (13명)
② 집값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14.3% (4명)
③ 가족(자녀·친척 등)과의 합가	10.7% (3명)
④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불만족	3.6% (1명)
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이전	17.9% (5명)
⑥ 기타	7.1% (2명)
계	100% (28명)

○ 최근 2년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응답한 14.3%를 대상으로 거주지 이전 후 겪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구·이웃 관계 단절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28.6%,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 25%로 높게 나타 남.

[표6-10] 거주지 이전 후 겪는 가장 큰 문제	
구분	응답
① 친구·이웃 단절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28.6% (8명)
② 보행·교통의 문제	14.3% (4명)
③ 이주한 곳의 거주환경 불만족	10.7% (3명)
④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	25.0% (7명)
⑤ 기타	21.4% (6명)
계	100% (28명)

7. 노인의 노후생활

□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기 시작 기준 연령

-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55.1%가 70-79세가 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 함.
- 실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연령대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인식이 일치 함. 생물학적 나이가 아닌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되어야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 됨.

구분	응답
① 60-69세	9.2% (18명)
② 70-79세	55.1% (108명)
③ 80-89세	31.6% (62명)
④ 90세 이상	4.1% (8명)
계	100% (196명)

□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 노인의 43.8%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만족(매우만족+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3%가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매우불만족+불만족)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 비율이 높은 영역은 배우자와의 관계(유배우자만 응답) 67.2%, 자녀와의 관계(유자녀만 응답) 58.8%,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45.9%, 사회·여가·문화활동 38.8%로 높게 나타남.
- 삶의 불만족 비율이 높은 영역은 건강상태 34.2%, 경제상태 36.2%로 높게 나타 남.

구분	응답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자신의 건강상태	10.2% (20명)	21.9% (43명)	33.7% (66명)	27.6% (54명)	6.6% (13명)	100% (196명)
② 자신의 경제상태	5.1% (10명)	21.4% (42명)	37.2% (73명)	29.1% (57명)	7.1% (14명)	100% (196명)
③ 배우자와의 관계(유배우자만) ※ C2에서 배우자 있다고 응답한 자	21.9% (14명)	45.3% (29명)	20.3% (13명)	7.8% (5명)	4.7% (3명)	100% (64명)
④ 자녀와의 관계(자녀있을 경우만) ※ C3에서 자녀있다고 응답한 자	17.5% (31명)	41.2% (73명)	26.0% (46명)	7.3% (13명)	7.9% (14명)	100% (177명)
⑤ 사회·여가·문화 활동	11.7% (23명)	27.0% (53명)	37.2% (73명)	16.8% (33명)	7.1% (14명)	100% (196명)
⑥ 친구 및 지역사회관계	10.7% (21명)	35.2% (69명)	34.7% (68명)	15.3% (30명)	4.1% (8명)	100% (196명)
⑦ 삶 전반	7.1% (14명)	36.7% (72명)	40.8% (80명)	11.7% (23명)	3.6% (7명)	100% (196명)

□ 노인 개인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

○ 45.4%가 노인 개인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응답함.

[표7-3] 노인 개인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	
구분	응답
① 매우그렇다	2.6% (5명)
② 그렇다	18.9% (37명)
③ 그저그렇다	33.2% (65명)
④ 그렇지않다	27.6% (54명)
⑤ 전혀그렇지않다	17.9% (35명)
계	100% (196명)

□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조사

○ 51.5%가 노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 함.

[표7-4]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조사	
구분	응답
① 매우그렇다	9.7% (19명)
② 그렇다	41.8% (82명)
③ 그저그렇다	31.1% (61명)
④ 그렇지않다	15.3% (30명)
⑤ 전혀그렇지않다	2.0% (4명)
계	100% (196명)

□ 지난 1년간 노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느낀 경험에 대한 조사

○ ‘대중교통 이용 시, 식당 및 커피숍 이용 시, 대형마트·백화점 등 판매시설 이용시, 주민센터·구청 등 공공기관 이용시, 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시, 일터(직장), 가족 내 주요의사 결정 시’ 총7개 항목에 대해 노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느낀 경험에 대해 조사 함.

- 평균 2.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각 문항별로 노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한 경험이 극히 드물었음.

구분	응답			계
	해당없음	그렇다	아니다	
① 대중교통 이용 시	21.9%(43명)	4.6% (9명)	73.5% (144명)	100% (196명)
② 식당, 커피숍 이용 시	21.9% (43명)	1.5% (3명)	76.5% (150명)	100% (196명)

③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 이용 시	21.9% (43명)	2.6% (5명)	75.5% (148명)	100% (196명)
④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기관 이용시	18.4% (36명)	3.1% (6명)	78.6% (154명)	100% (196명)
⑤ 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 시	17.3% (34명)	3.1% (6명)	79.6% (156명)	100% (196명)
⑥ 일터(직장)	46.4% (91명)	-	53.6% (105명)	100% (196명)
⑦ 가족 내 주요의사 결정 시	22.4% (44명)	2.6% (5명)	75.0% (147명)	100% (196명)

□ 웰다잉 실천 및 인식

○ 노인이 생각하는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이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 95.9%,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93.9%, 임종 전후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한 이후 임종을 맞이하는 것 85.7%, 임종 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함께하는 것 74.5%로 나타남.

[표7-6] 생애말기 좋은 죽음에서 다음 항목의 중요도

구분	응답					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중요하지않음	
① 임종 전후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한 이후 임종을 맞이하는 것	39.3% (77명)	46.4% (91명)	10.7% (21명)	2.6% (5명)	1.0% (2명)	100% (196명)
② 신체적, 정신적 고통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	59.2% (116명)	36.7% (72명)	3.6% (7명)	0.5% (1명)	-	100% (196명)
③ 임종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함께하는 것	31.1% (61명)	43.4% (85명)	15.8% (31명)	5.6% (11명)	4.1% (8명)	100% (196명)
④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53.1% (104명)	40.8% (80명)	5.1% (10명)	0.5% (1명)	0.5% (1명)	100% (196명)

○ ‘죽음준비교육 수강, 가족과 상속처리·장례의향 논의, 장례상담 및 상조회가입, 유서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기 등 기증서약, 장지, 수의 또는 영정사진’ 총 8개 항목을 통해 죽음준비 실태를 조사 함. 평균 84.1%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음.

구분	응답		계
	그렇다	아니다	
① 죽음준비교육 수강	17.3%(34명)	82.7%(162명)	100% (196명)
② 가족과 상속처리·장례의향 논의	17.3%(34명)	82.7%(162명)	100% (196명)
③ 장례상담 및 상조회가입	11.7%(23명)	88.3%(173명)	100% (196명)
④ 유서작성	8.7%(17명)	91.3%(179명)	100% (196명)
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9.9%(39명)	80.1%(157명)	100% (196명)
⑥ 장기 등 기증 서약	8.2%(16명)	91.8%(180명)	100% (196명)
⑦ 장지(묘지, 안당 등)	18.9%(37명)	81.1%(159명)	100% (196명)
⑧ 수의 또는 영정사진	24.5%(48명)	75.5%(148명)	100% (196명)

□ 자살생각 및 시도

○ 18.9%가 만60세 이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다고 응답 함.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만60세 이후 자살 생각 여부	18.9% (37명)	81.1% (159명)	100% (196명)

○ 자살을 생각해 본적 있다고 응답한 18.9%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서적 외로움 32.4%, 경제적 어려움 27%,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 18.9%, 건강문제 16.2%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
① 건강문제	16.2% (6명)
② 경제적 어려움	27.0% (10명)
③ 외로움	32.4% (12명)
④ 배우자·가족·지인 사망	5.4% (2명)
⑤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	18.9% (7명)
⑥ 배우자·가족의 건강 및 수발문제	-
계	100% (37명)

□ 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 확대 진행해야 될 사업에 대한 조사

○ 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 확대 진행해야 될 사업을 1,2순위로 나누어 조사함.

- 1순위로는 저소득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35.2%, 노인건강 증진 서비스 19.9%, 노인 고용 및 일자리 지원 19.9%, 노후 여가문화 서비스 15.3% 순으로 높에 나타남.

- 2순위로는 노인건강증진서비스 35.2%, 노후여가문화서비스 15.8%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7-10] 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 확대 진행해야 될 사업		
구분	응답	
	1순위	2순위
① 저소득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35.2% (69명)	8.7% (17명)
② 노인건강 증진 서비스	19.9% (39명)	35.2% (69명)
③ 노인들봄 요양 서비스	4.6% (9명)	8.2% (16명)
④ 치매관련 서비스	2.6% (5명)	7.7% (15명)
⑤ 노인 고용 및 일자리 지원	19.9% (39명)	7.7% (15명)
⑥ 노후 여가문화 서비스	15.3% (30명)	15.8% (31명)
⑦ 노인 자원봉사, 사회참여 지원	1.0% (2명)	7.1% (14명)
⑧ 노인 주거개선 및 지원	1.0% (2명)	9.2% (18명)
⑨ 기타	0.5% (1명)	0.5% (1명)
계	100% (196명)	100% (196명)

8. 고객만족도 조사

□ 만족도 결과 전체 항목에 대해 평균 87.2% 만족

- 과정만족 _ 친절성 _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한다 91.8% 만족(매우만족+만족)
- 전체만족 _ 재이용 _ 향후 이 복지관을 이용할 것이다 91.8% 만족(매우만족+만족)
- 전체만족 _ 만족도 _ 전반적 만족도 90.8% 만족(매우만족+만족)
- 결과만족 _ 유용성 _ 복지관 서비스가 유익했다 90.3% 만족(매우만족+만족)
- 전체만족 _ 추천여부 _ 타인에게 추천할만큼 만족스럽다 88.3% 만족(매우만족+만족)
- 결과만족 _ 일관성 _ 실제 서비스가 안내받은 내용과 같다 86.7% 만족(매우만족+만족)
- 결과만족 _ 변화성 _ 복지관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한다 84.2% 만족(매우만족+만족)
- 환경만족 _ 쾌적성 _ 직원은 복지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82.1% 만족(매우만족+만족)
- 과정만족 _ 전문성 _ 직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있다 79.1% 만족(매우만족+만족)

[표8-1] 동래구노인복지관 고객만족도 조사

구분			응답					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환경 만족	쾌적성	G1. 직원은 복지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5% (3명)	13.8% (27명)	44.4% (87명)	37.8% (74명)	100% (196명)
과정 만족	친절성	G2. 직원은 서비스 이용절차와 내용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	0.5% (1명)	6.1% (12명)	42.3% (83명)	49.5% (97명)	100% (196명)
	전문성	G3. 직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1.0% (2명)	17.9% (35명)	45.9% (90명)	33.2% (65명)	100% (196명)
결과 만족	일관성	G4. 실제 서비스(프로그램)가 안내받은 내용과 같다.	-	1.0% (2명)	11.2% (22명)	46.9% (92명)	39.8% (78명)	100% (196명)
	유용성	G5. 복지관 서비스(프로그램)가 나에게 유익했다.	-	-	8.7% (17명)	37.8% (74명)	52.6% (103명)	100% (196명)
	변화성	G6. 나는 복지관 서비스(프로그램)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	0.5% (1명)	14.3% (28명)	39.3% (77명)	44.9% (88명)	100% (196명)
전체 만족 (성과 만족)	추천 여부	G7. 내가 받은 서비스(프로그램)는 아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을 만큼 만족스럽다.	-	-	10.7% (21명)	39.3% (77명)	49.0% (96명)	100% (196명)
	재이용	G8. 나는 향후에 필요하면 이 복지관을 이용할 것이다.	-	-	7.1% (14명)	37.8% (74명)	54.1% (106명)	100% (196명)
	만족도	G9. 나는 복지관과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1.0% (2명)	7.1% (14명)	42.3% (83명)	48.5% (95명)	100% (196명)

III 결론 및 제언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신노년 세대 유입을 위한 노력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일시중단 기간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거 프로그램 정원 30%로 축소 운영 됨. 이에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가 많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존재 함.
- 복지관을 이용하는 연령대는 70-79세가 59.2%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이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조사 결과와도 일치함.
- 이에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및 노인에게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함.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담당자명
지역자원 및 조직화	기획홍보사업	이동복지관	- 지역 내 신노년 및 노인세대 많은 장소에 이동복지관 설치 - 복지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성현아

□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노인의 사회관계 확대

- 독거노인이 많고, 노인의 경우 극히 소수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관계가 단절될 경우 고립의 위험성이 있었음.
- 인간관계의 단절이 우울 및 자살시도와 연결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담당자명
상담사업	일반상담 및 보제공	신규회원 열린강좌	- 신규회원 관계형성 프로그램	이미소
	전문상담	우울감감소, 부부관계개선, 웰다잉교육, 브레인키퍼	-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배우자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노년기 가족 내 보호기능 확대

- 노인의 가구현황을 살펴보면 독거 다음으로 부부세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유배우자의 경우 71.9%가 배우자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고 ‘배우자와의 성격 및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생활방식으로 인한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배우자와 지난 1년간 도움을 주고 받은 정도에서 정서적 도움이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해 배우자가 있어도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향상 및 사회적 보호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담당자명
상담사업	전문상담	부부관계 소통프로그램	- 유배우자 중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모집 - 집단 프로그램, 전문가상담, 사후관리 등	이미소

□ 자녀의 돌봄기능 약화로 인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연계 필요

-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24.5%가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으므로 높게 나타남.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고, 자녀와의 연락 및 만남 빈도가 높아도 자녀가 멀리 살거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아플 때 즉시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추측 되었음.
- 이와 관련된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거나 관련 자원을 파악하여 연계할 필요성을 인식 함.

□ 만성질환별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 및 정서기능 증진

- 응답자의 86.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72.4%로 나타남.
- 만성질환의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당뇨병 25.2%, 고지혈증 15.6%,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16.3%, 우울증 9.8% 등의 순임.
- 이에 만성질환별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복지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담당자명
건강생활 증진사업	건강증진지원 사업	당노자가관리	- 당노관리교육, 운동, 식이조절 등	강효진
		고혈압자가관리	- 고혈압관리교육, 운동, 식이조절 등	
		근력향상프로그램	-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관리	
상담사업	전문상담	우울감감소프로그램	- 우울감이 높은 이용자 대상 - 상담, 집단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이미소
사례관리 및지역사 회돌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특화우울형	- 우울증 진단자 대상 - 전문의 치료, 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박민정

□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다각화 및 사업확대를 통한 지역노인의 인지기능 향상

- 응답자의 63.8%가 최근 2년간 치매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치매예방과 관련된 노력을 한다고 응답한 자도 64.8%로 높게 나타남. 치매예방 노력을 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4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주관적 인지상태 조사 결과 단순건망증을 앓고 있는자도 37.8%로 나타나 인지기능 강화와 관련된 개입이 필요함.
- 이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다각화 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접근성의 제한이 있더라도 치매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담당자명
상담사업	전문상담	브레인키퍼	- 거동불편 또는 접근성의 제한으로 복지관에 이용할 수 없는 자 - 전문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배치, 인지 및 운동관련 활동, 치매관련 서비스 제공	이미소
건강생활 증진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인지강화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 거동이 가능한 자로 복지관 내에서 진행 -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조기검진, 운동, 인지활동, 관련정보제공 등	강효진

□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 체험기회 확대 및 정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자 중 43.2%가 ‘어떻게·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로 나타남.
-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 이에 여가·문화 활동과 관련된 개방형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향후 복지관 정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담당자명
노년 사회화교육	여가취미교육	맛보기강좌 (단기특강)	-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준비 및 실시	이홍주

□ 정규 프로그램 개설 시,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필요

- 향후 희망하는 학습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 ‘건강관리(증진)·운동교육 39.2%, 문화·예술교육 30.9%, 컴퓨터 등 정보화교육 9.3%, 외국어 교육이 7.2%로 나타남.
- 향후 정규프로그램 개설 시 지역주민의 학습유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욕구비율별로 프로그램 수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올해 결과만으로 정규 프로그램을 모두 개편할 수는 없어 약2-3년 간의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자 함.

□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응답자의 89.8%가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음. 향후 희망하는 자원봉사 활동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 단순노력봉사가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단순노력봉사에 참여를 희망한 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상담한 결과 자원봉사활동으로 활용할만한 취미나 기술,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응답이 90%이상으로 파악 됨.
- 이에 누구나 교육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전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담당자명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노인자원 봉사단활동관리	행복나눔단	- 단순노력봉사 희망자	권장미
		전문봉사단	- 뜨개나눔단, 공연봉사단, 실버인형극단, 동화스토리텔러양성프로그램	

□ 정보화 기기 활용 교육 확대를 통한 디지털 접근성 향상

- 스마트폰 보유자 7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정보화 기기 사용은 메시지 보내기 등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 또한 가정내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도 65.3%로 높게 나타나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화 기기 이용여부 및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키오스크 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가 많았음.
- 전체적으로 정보화 기기 활용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아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확대하여 진행하고자 함.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담당자명
사회참여 및권익증진	전문봉사	디지털동년배멘 토링프로그램	-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전문노인봉사단 조 직, 강사교육, 디지털 프로그램 실시	권장미
노년 사회화교육	여가취미 교육	키오스크교육	- 봉사단 조직, 키오스크 이론 및 실습교육	이홍주
	정보화 교육	스마트폰활용교육	- 스마트폰 활용교육 정규반 3개 외, 대학생 자원봉사자 조직 및 강사교육, 스마트폰 활용 프로그램 진행	

□ 가치있는 삶의 의미와 주체적 노년 실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웰다잉 프로그램 확대

- 좋은죽음, 가치있는 삶, 주체적 노년기 실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평균 84.1%가 죽음 준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음.
- 현재 죽음준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노인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함.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담당자명
상담사업	전문상담	웰다잉교육	- 상반기 3개월 정도 프로그램 진행했으나, 상·하반기 7개월로 프로그램 진행 횟수 확대 함. - 지역사회 욕구조사 [표7-7] 죽음준비와 관 련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세부프로그램 계획하고자 함.	이미소